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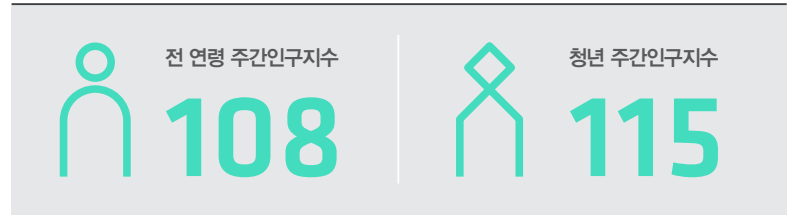
# 청년, 어떻게 움직이는가

서울의 청년 주간인구지수는 115로 서울에 사는 청년이 100명이라면 낮에 활동을 하는 청년은 115명이란 뜻이다. 상주인구 대비 청년주간인구 초과자 수가 무려 36만 2천명이다. 서울은 우수한 교육기관과 직장이 많아 청년이 낮에 활동하는 도시지만 주거비 등의 이유로 밤이 되면 떠나야 하는 도시이다.

[ 청년 기준 20-34세 | 자료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

주간인구 상주인구

## 주간인구 지수로 알아보는 [ 청년의 활동도시 VS 청년의 베드타운 ]



서울의 청년 주간인구지수는 115로 전 연령 주간인구지수 108보다 7포인트 높다. 대체적으로 전 연령 주간인구지수보다 청년 주간인구지수의 진폭이 크다. 즉 베드타운은 청년층에서 그 정도가 심해지고, 전 연령 주간인구지수가 높은 지역의 청년 주간인구지수는 대체적으로 더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 청년의 활동도시

- 중구 | 473 |
- 종로구 | 332 |
- 강남구 | 254 |

### 청년의 베드타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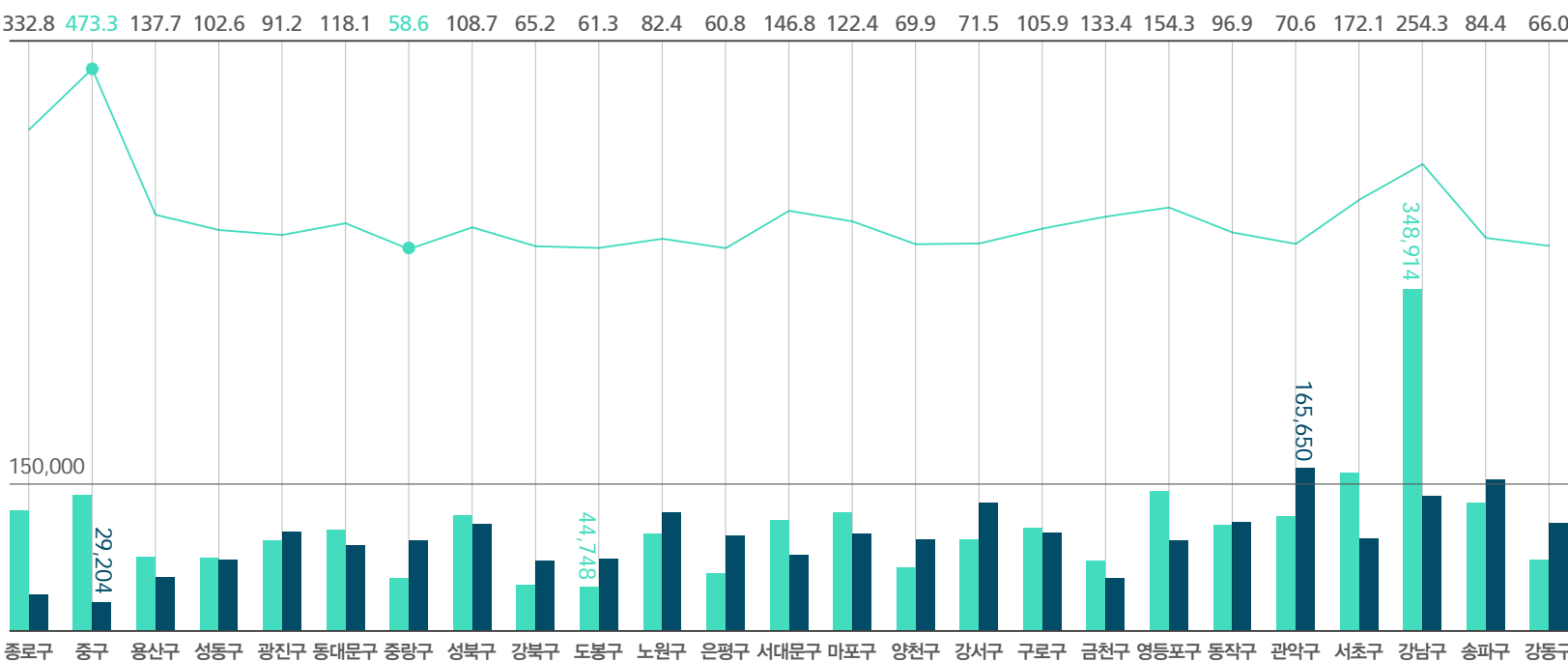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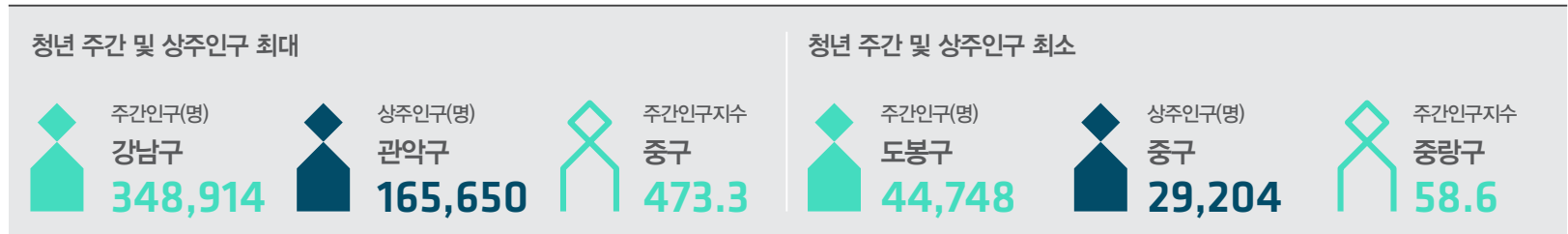
- 도봉구 | 61 |
- 은평구 | 60 |
- 중랑구 | 58 |

성북구는 특이하게 전 연령 주간인구지수는 100보다 낮지만(즉 베드타운이다) 청년 주간인구지수는 108로 높은 편이다. 주거 밀집지역이긴 하지만 고려대, 성신여대등의 종합대학이 밀집해 있기 때문에 청년주간활동 지수가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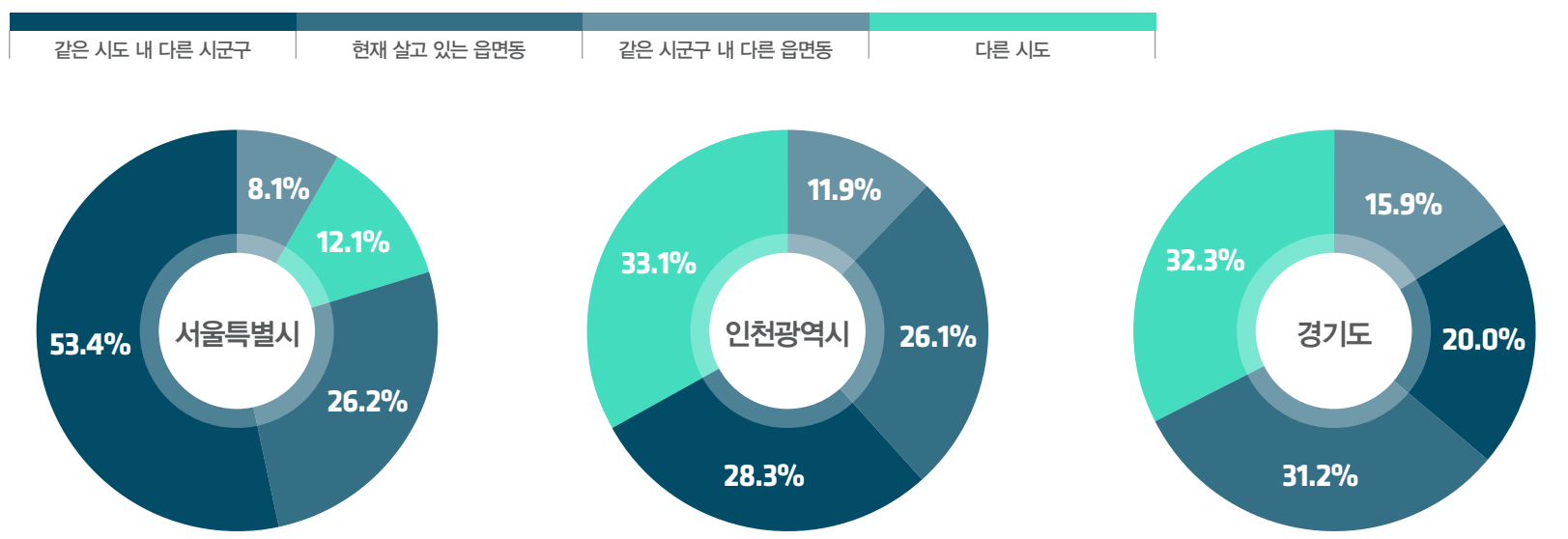
중구(473), 종로구(332), 강남구(254)가 청년들이 낮에 많이 활동하는 지역이고 도봉구(61), 은평구(60), 중랑구(58)는 대표적인 청년 베드타운이다. 강남구는 청년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인데, 주간 활동인구가 그 수의 2.5배를 넘을 정도로 청년의 활동이 많다. 청년인구가 가장 많은 관악구는 청년 주간인구지수가 70으로 많은 청년이 관악구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출근 및 통학을 하고 있다.

서울 거주 청년의 12.1%만이 다른 광역시도(인천, 경기)로 출근 및 통학을 하지만 인천광역시와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의 1/3은 다른 도시로 출근 및 통학을 하고 있다. 인천광역시는 33.1%, 경기도는 32.3%의 청년이 대부분 서울(혹은 다른 광역시도)로 출근 및 통학하고 있다. 그리고 주로 전철과 버스를 이용한다.

## 서울 구별 주간인구 및 상주인구 수 및 지수



## 청년, 통근통학 어디로 하는가? (서울, 경기, 인천)



## 청년, 통근통학 수단

